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출마 포부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KLPGA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춘자 프로입니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프로골프 선수가 되어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 했던 시절이 문득 생각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좋은 회장님들과 임원 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역경을 헤쳐 나갔으며, KLPGA가 분리 독립 후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 현재 세계 최고의 협회가 되기까지 KLPGA의 임원으로서, KLPGA의 회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하고 또한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회원번호 1번으로서, 그리고 맏언니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KLPGA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자부합니다.

저는 협회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KLPGA 임원의 자리가 무엇보다 무겁고 중요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은 협회가 놓여있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회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도 외부와의 소통도 원활히 하며, 대내외적으로 ‘튼튼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르게 적절한 판단을 하여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의 협회 행정가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뿐만 아니라 정, 관, 재계 등의 폭 넓은 네트워킹은 임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하여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협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 행정가로서의 많은 경험과 수많은 대외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인맥 등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전수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붓고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골프와 협회에 대한 애정으로만 걸어온 이 길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아닌 회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제 임기 중에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원 여러분께서 최고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넘버 원 투어인 KLPGA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가족 같은 KLPGA를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회원들의 복리후생에 힘써 회원들께서 KLPGA 회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협회 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KLPGA!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단어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제 마지막 불꽃을 살라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가슴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KLPGA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글로벌 넘버원 KLPGA 투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박한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출마 포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성 명 : 강 춘 자 